

## “명작 보러가자”...이건희 컬렉션 인기

광주시립미술관 연일 매진행렬  
23일만에 5500여명 다녀가  
이중섭·김환기 등 30점 선보여  
전남도립미술관 9월부터 전시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전국 단위 관람객 몰려 예매전쟁

이중섭·김환기·오지호...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건희 기증작' 전시회를 열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컬렉션을 기증받은 또 다른 지역 미술관인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도 전시 개최와 관련한 문의전화 가 잇따르고 있다. 또 21일 서울에서 동시 개막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역시 치열한 예매 전쟁을 거쳐 전국 단위 관람객이 몰리는 등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아름다운 유산-이건희 컬렉션' (5전시실)전을 열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는 21일 현재 5500명이

다녀갔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으로 하루 입장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일 관람 가능 인원을 모두 채우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인터넷 예약만으로 매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방학이 시작되면서 평일에도 인터넷 예매 건수가 늘고 있다. 평일인 21일에도 인터넷 예매만으로 마감에 이르렀다. 관람인원은 코로나 이후 기존 미술관 평일 관객의 3배, 주말 관객은 2배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미술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절반 정도가 미술관을 처음 찾는 이들도 나타나 '이건희 컬렉션'이 미술 인구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립미술관은 한 때 관람 가능 인원이 480명까지 늘기도 했으나 19일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 정시 30명, 240명씩 관람할 수 있으며 하루 3번씩 도슨트 해설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중섭·김환기·이응호·오지호·임직순 등 작가 5명의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으며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중섭의 작품인 '은지화'와 '엽서화' 등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바로 옆 6전시실에서는 미술관이 자체 소장한 김환기·임직순·오지호·전경자 등의 작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어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절도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컬렉션을 찾은 이들 중에는 '광주미



21일 광주시립미술관 제5전시실에서 '아름다운 유산-이건희 컬렉션' 그림으로 만난 인연 전시를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술아카이브전-강용운, 나를 춤추다'와 '메타가든' 전 등 현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또 다른 전시를 연이어 관람하는 경우도 부쩍 눈에 띄었다. 광주시립미술관 전시는 오는 8월19일까지 계속되며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무료 관람·월요일 휴관이다.  
전남도립미술관에도 이번 건희 컬렉션 전시 개최 시기와 전국 순회전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이어

지고 있다. 전경자의 '꽃과 나비', 김환기의 '무제' 등 9명 작가 작품 21점을 기증받은 도립미술관은 오는 9월1일부터 11월7일까지 '이건희 컬렉션전' (가칭)으로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컬렉션의 대표작들로만 구성된 대규모 전시가 진행중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30분당 20~30명만 입장이 가능해 치열한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첫날인 21일에는 전

국에서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9월26일까지)에서는 '인왕제색도' 등 국보 12건과 보물 16건을 포함, 문화재 45건 77점이 공개되며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한국미술명작' 전 (2022년 3월13일까지)에는 김환기 대작 '여인들과 향아리' 등 34명의 작품 58점이 나왔다. 예매 필수.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전남 감염 속출...델타 변이 우세종 됐다

광주 7월에만 12건 집중 발생  
여수 유치원 26명 델타 확인  
빠른 전파력에 감염 급속 확산

광주·전남에서 수도권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여수 여천초 병설유치원도 델타형 감염에 따른 것으로 잠정 결론났으며, 광주에서도 상무지구 등을 중심으로 델타형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의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는 알파형 31건, 델타형 13건 등 모두 44건이다. 알파형 6건, 델타형 5건 등 11건은 해외 유입, 나머지 33건은 국내 감염이다.  
<관련기사 2면>  
광주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전국 (4605건)의 0.95%에 불과해 비중은 크지 않지만, 델타형은 1건을 제외한 12건 (해외유입 5건 포함)이 지난 10일 이후에 확인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

르다는 점이 방역당국의 고민이다. 같은 기간 알파형은 1건 뿐이다. 특히 최근 누적 62명의 확진자를 낸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 영어학원 관련자 중 일부에서 델타형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관련 대규모 확산의 주범으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꼽히고 있다. 시는 또 지난 20일 확진된 상무지구 주점 관련 4명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검체를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전남에서도 전파력이 센 델타형 변이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확인된 게 모두 56건 (명)인데, 이 가운데 델타형은 27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알파형이 29명으로 전체 건수에선 앞서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이미 델타형이 우세종이 됐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 6월 들어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44건 가운데 델타형은 27건에 이르고 알파형은 17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월엔 현재까지 25건 중 델타형은 17건인데 비해 알파형은 8건에 불과하다. 특히 최

근 사흘 동안 2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여수 여천초 병설유치원 집단 감염 사례 역시 델타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결론지었다. 집단 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최초 확진자로 분류된 돌봄교사 (전남 1834번)와 델타형으로 확인된 전남 1735번의 동선 (회집)이 겹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천초 병설유치원 관련 확진자 26명은 원생 11명, 교사 1명, 학부모 3명, 초등생 11명 (여천 초 9, 여도초 2)으로 유치원을 넘어 초등학교 2곳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김경수 '덧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

대법 최종 판결  
드루킹 사건 4년여만에 마무리

'드루킹 덧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덧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덧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키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선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덧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 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찰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